해남, 군의원에 농업 보조금 논란

일부 주민들 "자치법 위반" 행안부도 "법 취지 어긋나"

군의원측 "8년째 무화과 농사짓는데…역차별 안된다"

해남군이 수십 년간 군의원에게 농업 보조금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선 지방의원 신분으로 농업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법의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8년째 무화과 농사를 짓고 있는 해남군의회 A의원은 지난해 무화과 하우스시설 개선사업 보조금으로 990만원(3천300㎡)을 지원받았다.

해남군은 무화과 재배 농민 17명에게 자부담 50% 조건으로 1㎡당 3천원씩 모두 6천69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방의원의 신분으로 농업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법이라는 주장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 3항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지방의원이 자치단체로부터 재산상 권리와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며 해당 의회는 윤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행정안전부도 군의원이 농업사업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어긋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행정안전부는 해남군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지방의원이 농업 보조금을 받게 된다면 해당 보조금의 교부와 그에 따른 예산심의, 보조금의 집행 및 보조사업 지도·감독, 사후정산 등에 있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만큼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지급 건은 해남 무화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신청자 전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라면서 "특정인에 대한 특혜는 없었으나 논란이 있는 만큼 앞으로 지방의원에게 농업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또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남군의회의 조치가 있을 경우 해당 의원에게 지급한 농업 보조금 회수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에선 지방자치법의 지나친 확대 해석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해남군 의회 B의원은 "평생 농업이나 축산업 등에 종사해 온 군의원들은 앞으로 직불제 보조금이나 농자재 보조금, 면세유 혜택 등을 받을 수 없어 역차별을 받게 됐다"면서 "모든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지방의원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창환 해남군 의회의장은 "내부적으로 해당 사안을 검토한 결과,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면서 "아직까지 이 같은 사례가 없었던 만큼 집행부와 함께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가정 형편 어려운 동거부부 무료 전통혼례 치러 드립니다"

전남도 농업박물관 28일

전남도 농업박물관(관장 강석오)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가정 형편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지역민들을 초청, 무료 전통혼례식을 치러주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농업박물관은 올해도 참가자 신청(추천)을 접수받아 자체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후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무료 전통혼례식을 치러줄 계획이다.

대상은 전남지역민 가운데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미뤄온 미혼 동거부부이며 개인이나 기관 및 사회복지단체 의 추천으로 공문,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농업박물관은 혼례 당일 박물관 야외 모정앞에 혼례청을 차려 놓고 옛 방식대로 예식을 치른다.

또 관람객들에게 흥미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목포 문화예술 공연단체인 극단 '갯돌'의 흥겨운 공연이 함께 어우러진다. 문의 (061-462-2796~9)

/영암=박진표기자 lucky@

새하얀 '옥잠화' 만개 담양군 관방제림에 천연기념물 제 366호인 새하얀 옥잠화가 만개했다. 백합과에 속하는 옥잠화는 8~9월에 꽃이 피고 꽃말은 '추억'이다. 〈담양군 제공〉

나무 태워 천연가스 발생장치 개발

전남산림자원硏, 열 분해로 수소·메탄가스 생산

목재가 탈 때 나오는 수소와 탄소를 이용해 천연가스를 만들어내는 장치가 개발됐다.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3일 목재가 탈 때 발생하는 수소·탄소에 산소와 수분을 공급해 연소가 가능한 수소와 메탄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는 '목재 천연가스 발생기' 개발에 성공했다.

목재 천연가스 발생기는 목재의 주성분인 셀룰로스와 리그닌을 400~600도에서 열분해시켜 가연성인 수소와 메탄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장치다.

이 장치는 건조 목재 톱밥 10kg으로 약 1시간 17분 정도 연소가 가능해 화목난로나 아궁이 등에서 연소시킬 때 사용되는 목재 연료량의 약 10%만으로도 동일한 열량을 낼 수 있다.

특히 목재톱밥 등을 활용한 겨울철 시설하우스와 난방 등 농업용 보일러, 조리용 LP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연료 개발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자원연구소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바이오 에너지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도내 농업용수가 맑아졌다

친환경농 확산, 암모니아태질소 등 감소

친환경 농업이 확산되면서 전남도내 농경지와 농업용수가 깨끗해졌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이 최근 실시한 농업환경 변동조사 결과 암모니아태질소 성분이 지난 2005년보다 1.5~2.7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기술원은 지난 4·7월 일반농경지 180지점과 하천수 37곳 등 농업용수 57곳의 시료를 채취해 분석을 실시했다.

이같은 암모니아태질소 함량 감소는 친환경농업 추진으로 화학비료 사용량이 줄어든 때문으로 분석된다.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자운영이나 헤어리베치와 같은 녹비작물 재배로 화학비료를 대체하는 등 전남도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친환경농업 정책 추진에 따라 농업용수가 개선됐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떠나가는 배, 민족시 최고의 수작"

광산, 박용철 시인 '학술 포럼' 성료

용아(龍兒) 박용철(1904~1938) 시인을 재조명하는 학술포럼이 3일 광산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문학인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

'용아, 박용철의 삶과 예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김용직 서울대 명예교수와 문병란 조선대 명예교수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김용직 서울대 명예교수는 발표 주제인 '용아 박용철론'에서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에서도 선생은 모국어를 쓰는 시인으로 살며 우리 문단의 지형을 바꿀 정도의 큰일들을 했다"며 "박용철 이외의 시인으로서 1930년대 우리 시단에서 창작론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꾸준한 이론적 추구를 시도한 예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문병란 조선대 명예교수는 박 시인의 대표작 '떠나가는 배'를 동시대 민족시 최고의 수작으로 꼽으며 그 근거로 ▲완벽에 가까운 형식성 ▲시대를 투영한 주제의식 ▲적절한 언어선택 등을 들었다.

문 교수는 "도식화된 좌우익 대결구도에서 그의 순수했던 시 문학적 시 운동이 지닌 참뜻을 온전하게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 새 얼 굴 /

"도덕성·창의성 교육에 매진 할 터"

성 길 모 화순 교육장

"도덕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세계와 미래로 웅비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성길모(59) 신임 화순교육청 교육장은 "성실·사랑·봉사를 통해 화순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을 느낄 때까지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화순 남면 출신인 성 교육장은 광주교육대학과 전주 우석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지난 1970년 보성 문덕초등학교에서 교직을 시작해 나주고 교감, 고흥 과역중 교장, 전남도 학생교육원 교육연구관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이애순(58)씨와 사이에 2남 1녀가 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제사업 신청하세요"

목포 수산사무소, 5일까지

목포 수산사무소(소장 이황복)가 5일까지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제사업' 3차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배합사료 직불제사업'은 연안어류 양식어장의 환경오염과 자원 남획을 방지해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국고 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대상은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허가를 받고 해상 가두리식 또는 육상 수조식 어류양식을 경영중인 어업인 및 생산자 ▲배합사료를 100% 사용하거나 3개월 이상 사용하는 자로 구입 금액의 30%를 지원하게 된다. 문의 (061-280-1741) /목포=이상선기자 sslee@